

제 목	담당부서	비 고
① Apple, 경북도와 손잡고 지역과 함께 상생 생태계를 만든다 - Apple 제조업 R&D자원센터, Developer Academy 설립·운영 양해각서 체결 - Apple⇄경상북도⇄포항시⇄포스텍 - 지역발전의 동반자로서 미래비전에 대한 공유를 통한 파트너십 구축 - 도(道), 민관합동 실무지원단 출범, 지역 산업계 파급효과 극대화 전략 수립	4차산업기반과	
② 경북도, 대한민국 스타 마을기업 2년 연속 배출 - 포항노다지마을, 행정안전부 ‘모두爰 마을기업’ 선정	사회적경제과	
③ 경북도립대 자동차과 입학 동시에 취업 ‘아우스빌딩’ 도입 - 한독상공회의소와 독일식 일·학습병행 인력양성 업무협약 체결 - 현장 직무능력 중심 교육, 산업체가 원하는 인재 양성	경북도립대학교	
④ 경북도, 공공건축 패러다임 변화 시도 - 건축정책위원회 위원 위촉식 개최, 위원장에 배병길 총괄건축가 - 건축문화 진흥 사항 심의·자문역, 관련 전문가 22명으로 구성	건축디자인과	
⑤ 여성농업인 권익 향상 농업소득도 UP, 우리농촌 氣도 UP - 경북생활개선회 예천군문화회관에서 여성농업인 소득화 교육 개최	농업기술원	
⑥ 이철우 도지사, 축사분뇨해결 현장에서 답을 찾다 - 한우농가 애로사항 청취, 분뇨처리 방안 등 논의	축산정책과	
⑦ 하대성 경북도 경제부지사, 태풍 재해복구현장 점검 - 조기준공을 위한 민원·애로사항 청취, 현장관계자 격려 - 연말까지 대부분의 공정을 마무리하여 피해재발 방지 독려	하천과	
⑧ 경북도, 영천 자호천 자연친화적 생태하천 복원 완료 - 자호천 6.7km 수질개선, 축사철거 친수공간 조성 등	환경안전과	

 경상북도	보도자료 【21. 9. 27(월)】	담당부서	과학산업국 4차산업기반과			
		작성 자	과 장	박 인 환		
			팀 장	김현주	주무관	이하녕
		연 락 처	054-880-2472			

Apple, 경북도와 손잡고 지역과 함께 상생 생태계를 만든다

- Apple 제조업 R&D지원센터, Developer Academy 설립·운영 양해각서 체결 -
- Apple⇔경상북도⇔포항시⇔포스텍 -
- 지역발전의 동반자로서 미래비전에 대한 공유를 통한 파트너십 구축 -
- 도(道), 민관합동 실무지원단 출범, 지역 산업계 파급효과 극대화 전략 수립 -

경상북도는 27일 오후 포항시청 대회의실에서 Apple, 포항시, 포스텍과 함께 Apple 제조업 R&D지원센터 및 Developer Academy(이하 ‘개발자 아카데미’) 설립·운영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Apple은 포스텍 캠퍼스 내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 공정과 친환경 제조기술을 지원하는 Apple 제조업 R&D 지원센터와 개발자 아카데미를 설립하고, 포스텍과 함께 운영한다.

이번에 들어서는 제조업 R&D 지원센터는 국내 제조업에 특화해 운영할 예정이며, SW핵심인력들을 양성하는 개발자 아카데미는 처음으로 한국에서 설립하게 된다.

경북도와 포항시 그리고 포스텍은 지난 4월부터 민관 합동TF를 구성해 Apple 제조업 R&D지원센터 유치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그간 경북도는 수차례에 걸친 화상회의와 현장실사를 통해 Apple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유했고 Apple은 경북도의 4차 산업혁명시대의 발전의지와 산업정책에 대한 철학에 상당부분 공감대를 형성해 제조업 R&D지원센터의 입지로 포항을 결정하게 됐다.

Apple 제조업 R&D지원센터는 중소기업의 스마트 제조업 역량 강화를 위해 스마트 공정과 관련된 최신장비를 구축하고, Apple의 전문인력이 상주하면서 지원 대상에 선정된 전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 등을 진행하게 된다.

경북도는 일찍이 스마트 팩토리에 관심을 가지고 1200개가 넘는 기업에 보급한 경험을 살려 Apple과 협업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스마트 팩토리를 넘어서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인공지능 팩토리로 나아가 한다는 비전을 설계하고, 앞으로 ‘경북 스마트 AI팩토리 프로젝트’를 진행할 방침이다.

스노우·카카오뱅크 같은 전 세계 iOS 앱(애플리케이션)경제에서 놀라운 성공을 거둔 한국 개발자들의 모범사례를 통해 재능 있는 개발자, 기업가, 디자이너를 육성하는 교육도 진행한다.

약 9개월 과정으로 200여명의 교육생들이 Apple 개발자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내의 SW기반 스타트업들이 생겨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포스텍을 ‘SW혁신파크’로 육성하고, 비수도권의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4차산업혁신밸리’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번의 협업사례는 경북도의 연구중심 도정운영과 Apple의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통한 혁신이라는 양측의 운영 철학이 조화롭게 매칭돼 이뤄 낸 사업이다.

단순한 지역 간 인센티브 경쟁에서 벗어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이뤄낸 결과물이기 때문에 더욱 빛난다고 볼 수 있다.

Apple은 ‘제조업 R&D지원센터’와 ‘개발자 아카데미’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지역 균형 발전과 한국 경제 성장에 기여할 예정이란 입장이다.

경북도는 지역에 절실했던 청년벤처창업환경에 대한 새로운 기회 제공과 지역 중소기업 기술력 향상을 통해 내생적인 발전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로 보고 있다.

한편, 경북도와 포항시는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포항을 연구개발의 중심지를 넘어 벤처창업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포스텍을 캠퍼스 혁신파크로 지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도시첨단 산업단지로도 동시에 지정받겠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기존 강소연구개발특구, 규제자유특구를 넘어 스타트업 특구로서 위상을 정립하고, 지역의 내생적 발전 동력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경북도는 앞으로 산학연관 원팀으로 Apple 상생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후속 발전전략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Apple Korea 윤구사장은 이날 “Apple은 한국에서 함께 해온 오랜 역사에 대해 큰 자부심을 느끼며, 미래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투자를 확대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Apple 개발자 아카데미와 제조업 R&D지원센터는 국내 개발자와 기업가, 학생들에게 핵심적인 기술과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국가적인 경제적 기회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행정의 특수성은 존재하지만 지방정부는 300만 도민과 지역기업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주식회사와 다름없다” 라면서, “Apple도 우리 지역의 산업정책을 만들어가는 파트너로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Apple은 혁신성·창의성을 통해 세계 트렌드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이번 R&D 지원센터와 개발자 아카데미의 설립은 한국에서도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미래 교육 분야와 국내 중소기업의 성장을 통해 지역경제는 물론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무환 POSTECH 총장은 “소수정예 교육과 혁신적인 연구로 국가와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설립목표를 가진 포스텍에 애플이 제조업 R&D지원센터와 개발자 아카데미를 설립하게 된 것은 무척 큰 기쁨”이라며, “이들 센터는 기업가와 학생은 물론 산업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배움과 혁신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경상북도	보도자료 【21. 9. 27(월)】	담당부서	일자리경제실 사회적경제과			
		작성 자	과 장	김 백 환		
			팀 장	윤소영	주무관	김유민
		연 락 처	054-880-2622			

경북도, 대한민국 스타 마을기업 2년 연속 배출

- 포항노다지마을, 행정안전부 ‘모두爰 마을기업’ 선정 -

경상북도는 올해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심사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 마을기업인 ‘모두爰 마을기업’을 배출하는 쾌거를 올렸다고 27일 밝혔다.

* 모두爰 마을기업 : 행정안전부가 매출과 인지도가 높은 ‘간판 마을기업’을 선정하여 마을기업의 가치를 전파·확산하고 마을기업을 대표하는 성공사례 발굴의 일환으로 2020년 첫 시행

모두爰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농업회사법인 포항노다지마을’ (이하 포항노다지마을)은 일자리창출, 매출 증대 등 경제적 성과뿐만 아니라 지역과 어우러져 함께 성장해나가는 공동체성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아 선정의 영광을 차지했다.

모두爰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면 1억 원의 사업개발비가 지원된다.

포항 남구에 소재한 포항노다지마을은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치즈떡볶이, 소떡소떡 등) 제조·판매를 통해 지역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등으로 안정적인 소득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 갈수록 고령화 되고 활력을 잃어가는 농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마을기업의 성공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2013년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이 마을은 고령화로 인한 농업 생산성 악화, 소득감소, 인구 유출에 따른 일자리 부족 등으로 소멸위기에 직면한 마을을 살리고자 지역주민 7명이 의기투합해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제조·판매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발효 귀리를 이용한 건강기능식품 개발·판매, 지역 내 휴경지를 활용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 마을 폐광산을 활용한 장류(된장, 청국장 등)사업, 폐자원을 활용한 친환경농약 개발·판매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금은 고용인원 24명(상근 17, 비상근 7), 연매출 10억에 이르는 견실한 기업으로 성장했고, 청년일자리 창출로 청년인구 유입과 농가소득 향상으로 활력 넘치는 농촌마을을 실현하고 있다.

김은래 포항노다지마을 대표는 학생들에게 농촌 현장실습교육을 제공하고 지역 학교 및 보육원, 병원 등에 다양한 기부 활동과 폐자원(게껍질, 쌀뜨물 등)을 활용한 미생물 친환경농약을 개발해 마을주민들에게 무상 공급하는 사회봉사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모두愛 마을기업은 마을기업으로 지정 된지 2년 이상 경과하고 최근 3년 간 평균 매출액이 3억 원 이상인 기업 중에서 공동체성, 지역 사회공헌활동 등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여야 선정된다.

행안부는 우수한 마을기업을 선발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시행했으며, 경북도는 2년 연속 모두愛 마을기업을 배출하는 성과를 이뤘다.

* 2020년 모두愛 마을기업 : 의성군 ‘영농조합법인 푸루른’ (친환경 분변토 생산 및 판매)

이번 모두愛 마을기업 심사는 행안부 주관으로 전국 16개 마을기업이 도전해 지난 8월 서면심사, 발표심사 등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경북도는 마을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 지원, 판로개척, 홍보·마케팅 및 상품성 강화 지원 등으로 마을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 청년 마을기업을 비롯한 창의적이고 새로운 유형의 신규모델 발굴과 더불어 ‘모두愛 마을기업’ 등 마을기업 성공사례 발굴에도 힘쓰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마을기업이 침체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공동체 회복을 견인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경북형 마을기업 발굴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이라고 밝혔다.

경북 “농업회사법인 포항노다지마을(주)” 행안부 『2021년 모두愛 마을기업』 선정

□ 심사개요

- 선정규모 : 전국 5개소 내외
- 지원내용

선정내역 (개소)	사업개발비 지원	비고
모두愛 마을기업	100백만원	자부담 10% 홍보 및 판로지원

- 선정절차 : 시도 추천(~8.31 / 전국16개소), 행안부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심사(9.14)
- 심사기준 : 공동체성, 공공성, 기업성, 지속성 등 평가

□ 심사결과

- 모두愛 마을기업 선정 발표(9.24)
- 모두愛 마을기업 인센티브 사업비 교부 : '21. 9월 말

2021 모두愛 마을기업 “포항노다지마을(주)” 개요

- ▶ (마을기업지정) 신규2013(5천만원 지원), 재지정2014(3천만원)
- ▶ (매출) 946백만원(2020년 기준)
- ▶ (회원) 23명(지역주민 19명)(2020년 기준)
- ▶ (고용인원) 24명(상시17 비상시 7)
- ▶ (사업내용) 지역 (친환경)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제조·판매
 - ▶ 모두愛 마을기업 선정 사유
 - 조합원수의 지속적 확대 : 2013년 7명 → 2020년 23명(지역주민19명 82%)
 - 지속적 매출 및 고용 증가 : 2013년 43백만원(고용2명) → 2020년 946백만원(고용24명)
 - 지역사회 봉사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인정
 - 지역 내 안정적 소득원 마련,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 창출 및 사업 다각화
 - 친환경 농약 개발하여 농가에 무상공급, 지역 내 다양한 기관에 기부 및 봉사 등

 경상북도	보도자료 【21. 9. 27(월)】	담당부서	경북도립대학교 행정사무국			
		작성 자	국 장	김 동 배		
			팀 장	이성희	주무관	
		연 락 처	054-650-0131			

경북도립대 자동차과, 입학 동시에 취업 ‘아우스빌둥’ 도입

- 한독상공회의소와 독일식 일·학습병행 인력양성 업무협약 체결 -
- 현장 직무능력 중심 교육, 산업체가 원하는 인재 양성 -

경북도립대학교는 27일 오전 대학본부에서 김상동 총장과 스테판 스포프로이 한독상공회의소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우스빌둥 직업훈련교육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북도립대학교와 한독상공회의소가 아우스빌둥 직업훈련교육의 체계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우스빌둥(AUSBILDUNG)’은 기업의 현장교육과 학교의 이론교육이 결합된 독일의 선진 기술인력 양성과정이다.

국내에서는 한독상공회의소의 주관으로 독일계 자동차 기업과 협력대학들이 연계해 자동차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교육대상은 특성화고, 직업계 고교 등의 3학년 학생들이며, 이들은 협력대학과 기업에서 총 36개월(이론교육 12개월, 현장실무교육 24개월 병행)의 교육을 받게 된다.

이번 협약으로 경북도립대학교는 내년부터 아우스빌둥 프로그램 교육생으로 선발된 입학생 15명에게 자동차 도장 및 판금 기술에 관한 이론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생들은 졸업 후 전문학사 학위와 독일연방상공회의소의 아우스빌
등 인증서를 취득하게 된다.

또한 BMW그룹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아우디 폭스바겐코리
아 등 독일계 자동차 기업에 취업해 숙련된 전문 인력으로 거듭난다.

스테판 스포로이 한독상공회의소 부회장은 “아우스빌등이 기존 자동차
정비 분야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자동차 도장 및 판금 분야로 확대됐다” 라
면서, “이번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 이라고 말했다.

김상동 경북도립대학교 총장은 “아우스빌등 직업훈련교육 협력대학으로
본교가 참여하게 돼 영광스러우며, 앞으로 한독상공회의소와 상호 협력해
자동차 도장 및 판금 분야의 인력양성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설·
장비 구축을 적극 지원할 것” 이라고 말했다.

경북도립대학교의 대표적인 학과인 자동차과는 국내 최고 자동차 판금
및 도장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이미 정평이 나 있다.

매년 80% 이상의 취업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철도 및 자동차 제조업체,
화학도료 전문 제조업체, 공공기관, 해외 기업 등 다양한 곳에 취업해 도
장기술 전문인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우스빌둥 직업훈련교육 업무협약 체결 계획

◆ 기업의 현장교육과 직업전문학교의 이론교육 병행으로 독일의 선진 기술 인력 양성 및 국내 자동차 산업 발전에 기여

◆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대학·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아우스빌둥(AUSBILDUNG) : 기업의 실습과 학교의 이론교육을 병행하는 독일식 인재양성 과정

행사개요

○ 일 시 : 2021. 9. 27.(월) 11:00

○ 장 소 : 경북도립대학교 본관 회의실(2층)

○ 참석인원 : 총 7명

- (경북도립대) 총장님, 이유태 교수, 김동배 행정사무국장, 김규덕 기획홍보처장
- (한독상의) 스테판 스프로이 부회장, 수잔네 뵈얼레 부대표, 김영진 부장(통역)

○ 주요내용 : ‘아우스빌둥’ 직업훈련교육 업무협약 체결, 자동차과 실습현장 견학 등

시간계획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1:00 ~ 11:10 10'	▶ 환 답	총장실
11:10 ~ 11:15 5'	▶ 개회 및 내빈소개	사회자 (기획홍보처장)
11:15 ~ 11:20 5'	▶ 인사 말씀	총 장 한독상공회의소 부회장
11:20 ~ 11:25 5'	▶ 협약서 주요내용 설명	자동차과 학과장
11:25 ~ 11:27 2'	▶ 협약서 서명 및 교환	경북도립대학교 ⇔ 한독상공회의소
11:27 ~ 11:30 3'	▶ 기념 촬영	-
11:30 ~ 11:50 20'	▶ 자동차학과 실습현장 견학 (차량개발실습실 → 도장기술센터)	자동차과 학과장
11:50 ~	▶ 폐 회	

참고

독일 '아우스빌둥(AUSBILDUNG)' 프로그램 개요

한독상공회의소와 독일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 간 협력을 통해 국내 인재를 발굴하여 브랜드 정통 기술력을 갖춘 전문엔지니어로 성장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이원 직업교육 실시 ※ 2017년 국내 도입

추진개요

- (주 관 사) 한독상공회의소(대표 마틴 행켈만) * 서울시 용산구 소재
- (선발대상) 직업계고 자동차·기계과 관련 3학년 재학생,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증 보유 3학년 재학생
- (교육분야) 자동차 정비, 도장, 판금 등 3개 분야
- (참여기업) 국내 소재 독일 자동차 회사 총 7개사*
* BMW, 만트럭버스, 다임러트럭, 메르세데스-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포르쉐
- (협력대학) 총 4개 대학
 - (신규) 경북도립대학교('22학년 입학정원 35명 중 15명 입학 예정)
 - ※ (기존) 두원공과대학교('18), 여주대학교('18), 영남이공대학교('21)
- (교육기간) 총 36개월(이론교육 12개월(3학기), 현장근무 24개월)
* 군복무기간 18개월 제외(1학년 1학기 종료 후 취업맞춤특기병 입대)

지원혜택

- (지원사항) 훈련지원금 지급 및 졸업 후 취업, 인증서·학사학위 취득 등

구 분	지원내용
재학중	(학기중) 월 100만원 / (방학중) 현장실습 월 170~180만원 지급 ※ 지원금 부담 : 참여기업사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졸업후	① 협력대학 학사 학위 취득 ② 아우스빌둥 인증서(독일연방상공회의소 부여) 취득 ③ 취업 유지(2년 경과 후 이직 가능)

- (지원제한) 교육 및 취업유지 기간 중 본인 중도 포기 시 지원금 반환

 경상북도	보도자료 【21. 9. 27(월)】	담당부서	건설도시국 건축디자인과			
		작성 자	과 장	배도석		
			팀 장	손지성	주무관	어하영
		연 락 처	054-880-4035			

경북도, 공공건축 패러다임 변화 시도

- 건축정책위원회 위원 위촉식 개최, 위원장에 배병길 총괄건축가 -
- 건축문화 진흥 사항 심의·자문역, 관련 전문가 22명으로 구성 -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는 27일 도청에서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 및 건축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건축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 경북도 건축정책위원회는 배병길 총괄건축가를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건축설계, 건축계획, 도시계획, 디자인, 문화 등 전국의 건축분야 전문가와 도 건설도시국장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앞으로 경북도 건축 정책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 자문하며,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위원회는 최근 공공건축과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건축정책의 종합적·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 행정의 플랫폼위에 대학, 기업, 전문가의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는 ‘연구중심 혁신도정’의 일환으로 구성하게 됐다.

주요 기능은 ‘건축기본법’ 제12조에 따른 5년 단위의 광역건축기본계획에 대한 심의, 경북도 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자문 및 분야별 소위

원회 활동 등 건축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활동을 한다.

위원장을 맡은 배병길 총괄건축가는 “위원들께서는 도민의 대표로서 따끔한 조언과 건강한 대안제시를 해달라” 라며, “심도 있는 논의로 건축정책 심의뿐만 아니라 공공건축 사업의 디자인 품질향상, 도시공간의 공공성 확보 등에 기여하겠다” 라고 밝혔다.

경북도 관계자는 “좋은 건축은 장소의 문화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건설 산업의 생태계 변화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할수행으로 지역의 풍경과 도민의 삶의 질을 바꾸어 줄 것” 을 당부했다.

경상북도 건축정책위원회 위촉식 개최 계획

■ 행사개요

- 일 시 : 2021. 9. 27.(월) 14:00
- 장 소 : 도청 화랑실 (2층 254호)
- 인 원 : 20명 정도
- 주요내용
 - 위촉장 수여
 - 건축정책위원회 운영지침 토론

경상북도 건축정책위원회

- 임 기 : 2021.7.13.~2023.7.12. (2년간)
- 구 성 : 22명(당연직1, 위촉직21)
- 업 무 : 건축분야에 대한 중요한 정책 및 건축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

■ 시간계획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4:00 ~14:05 (5')	5'	개회 및 참석자 소개		
14:05 ~14:25 (20')	10'	1부 위촉식	위촉장 수여	총괄건축가
	5'		인사말씀	
	5'		기념촬영	
14:25~14:40 (15')	15'	휴식		
14:40 ~15:20 (40')	20'	2부 토론회	건축정책위원회 운영방안	
	20'		건축문화 진흥관련 토론	
15:20 ~15:30 (10')	10'	폐회		

 경상북도	보 도 자 료 【21. 9. 27(월)】	담당부서	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			
		작 성 자	과 장	원 민 정		
			팀 장	이우경	주무관	-
		연 락 처	053-320-0285			

여성농업인 권익 향상 농업소득도 UP, 우리농촌 氣도 UP

- 경북생활개선회 예천군문화회관에서 여성농업인 소득화 교육 개최 -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27일 예천군문화회관에서 한국생활개선경상북도연합회 회원을 대상으로 ‘2021 여성농업인 소득화자원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여성농업인의 농가경영 참여 및 역할 증대로 농촌소득 향상을 주도하고 농촌 여성에게 새로운 농촌자원 소득화 개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됐다.

리더로서의 농촌여성 경영마인드에 대한 특강은 현장 교육으로, 천연염색 가방만들기 체험키트 실습교육은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경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생 氣살리기’의 성과보고와 우수회원에 대한 시상도 함께 이뤄졌다.

특히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농촌에서 역할과 비중이 증대되고 있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양성평등 실천 결의도 가졌다.

여성농업인이 일상에서 겪는 불평등 요소를 종이비행기에 적어 날려 보내는 퍼포먼스를 통해 평등을 일상으로 생활하자는 뜻을 전했다.

이진희 한국생활개선경상북도연합회 회장은 “여성농업인은 가정일은

물론 농사일에도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젠 그들도 직업적 지위를 보장받아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생활개선회는 어려운 시절 농촌을 지켜주셨던 어머니의 저력으로 우리 농촌의 기를 살렸다. 이제는 여성의 섬세함과 포용력으로 주체적 리더로서 미래 경북 농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어 달라” 라고 당부했다.

한국생활개선경상북도연합회는 1958년 농촌부녀자 학습단체로 생활개선구락부로 설립되었고 현재는 도내 303개회 1만2천여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초창기에는 낙후된 농촌 생활개선을 위해 부엌과 화장실 개량, 농번기 탁아소 운영 등을 해왔고 지금은 과학영농과 생활기술 실천은 물론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 등과 같은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한 캠페인도 추진하고 있다.

***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 : 농업경영체의 배우자인 여성농업인을 공동경영주로 등록하여 경영주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고 직업적 지위를 강화하자는 캠페인

2021 여성농업인 소득화자원 교육 계획

- ❖ 여성농업인 경영마인드 및 역할 증대로 농촌소득 향상 주도
- ❖ 농촌 여성에게 새로운 농촌자원 소득화 개발 기회 제공

□ 교육개요

- 일 시 : 2021. 9. 27.(월), 10:00~13:30 * 개회식 10:10
- 장 소 : 예천군문화회관 대공연장
*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209-15
- 인 원 : 100명(생활개선회원)

□ 주요내용

- (시 상) 생활개선회 우수회원 도지사 표창(23명)
- (성과보고) 경북형 민생 氣살리기 및 농업성과
- (퍼포먼스) 여성농업인 양성평등 실현 결의
- (특 강) 여성경영인의 마인드 및 역할

□ 시간계획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0:00~10:10	10	○ 홍보 영상	
10:10~10:25	15	○ 개회 및 시상	
10:25~10:32	7	○ 민생 氣살리기 및 농업성과 보고	
10:32~10:47	15	○ 개회사 및 인사말씀	
10:47~10:55	7	○ 여성농업인 양성평등 실천 퍼포먼스	
10:55~12:55	120	○ 여성경영인 마인드 및 역할 특강	
12:55~13:30	35	○ 체험키트 설명 및 배부	
13:30~		○ 폐회	

 경상북도	보도자료 【21. 9. 27(월)】	담당부서	농축산유통국 축산정책과			
		작성 자	과 장	남 진 희		
			사무관	이재식	주무관	홍현표
		연 락 처	054-880-3416			

이철우 도지사, 축사분뇨해결 현장에서 답을 찾다

- 한우농가 애로사항 청취, 분뇨처리 방안 등 논의 -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7일 영천 소재 한우농가를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가축분뇨를 퇴비화하는 과정을 직접 확인하는 등 농업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에는 최기문 영천시장, 도의원, 영천시의회 의장 및 한우협회 도지회장과 임원 등 관계자 20여 명이 함께 했다.

이날 이 지사는 영천 청통면 소재 성진축산농장(농장주 최종효)을 방문해 축산농가 애로사항 청취와 가축분뇨 부숙 현장을 견학하고 걱정된 분뇨처리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동안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분뇨에 의한 악취문제와 환경오염은 축산업의 발전에 발목을 잡는 가장 큰 문제로 대두 돼 가축분뇨 처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정화시설 확충, 악취 저감 시설 설치 및 공동자원화 등 많은 방안이 실시되고 있다.

최근에는 퇴비부숙도 관리를 통해 경종농가에서 퇴비를 활용한 친환경 농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더 이상 축산업이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오명

을 듣지 않도록 가축분뇨문제 해결에 모든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라며, 도에서도 환경오염 해결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지사 축산농가 현장방문 계획

개 요

○ 일 시 : 2021. 9. 27.(월) 12:00

○ 장 소 : 성진축산농장

(한우협회 경북도지회장 최종효, 청통면 청통로 75-6)

○ 참 석 자 : 20명 정도

* 주요참석자 : 도지사, 영천시장, 도의원 3, 한우협회 도 임원 등

○ 방문목적 : 한우농가 민생현장 방문 및 현안사항 청취

경상북도 한우산업현황

① 사육현황(통계청, '21.6) : **19천호, 737천두**(전국 90천호 3,344천두의 22% **전국1위**)

* 영천시 : 990호, 41,495두(영천시 지부장 : 류도희)-도내 8위

② 성진축산농장

- 농장주 : 최종효(한우협회 도지회장), 축사 2동, 1,444.4m², 한우 120두

③ 가격동향(도매가격)

- 거세우 평균: '20.12) 20,667원/kg → '21.3) 21,961 → '21.6) 23,966 → '21.9.16) **22,604**
(생축가격) 7,428천원/600kg 7,893 8,613 **8,126**

시간계획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2:00		◆ 도착	· 성진축산농장(최종효)
12:00~12:10	10'	◆ 농장 사육시설 및 축분교반 시연	
12:10~12:20	10'	◆ 현안사항 등 의견청취	
12:20~12:30	10'	◆ 이동	
12:30~		◆ 점심식사	

 경상북도	보 도 자 료 【21. 9. 27(월)】	담당부서	하천과			
		작 성 자	과 장	박 종 태		
			사무관	권오열	주무관	김성욱
		연 락 처	054-880-4087			

하대성 경북도 경제부지사, 태풍 재해복구현장 점검

- 조기준공을 위한 민원·애로사항 청취, 현장관계자 격려 -
- 연말까지 대부분의 공정을 마무리하여 피해재발 방지 독려 -

하대성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27일 오후 지난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울진 평해면과 온정면 일원 지방하천 재해복구 현장을 찾아 긴급점검을 실시했다.

하 부지사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사항과 지역건설사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 등을 토론했으며, 현장 관계자를 격려하고 안전사고 없는 견실한 시공을 주문했다.

이번에 긴급 방문한 재해복구사업 현장은 울진 평해읍과 온정면 일원 평해 남대천으로 총사업비 385억, 축제 및 호안 L=8.32km 정비, 교량 8개소 개체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경북도는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3개의 공구분할을 통해 지역 업체 참여율을 확대했다.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은 태풍으로 인해 유실된 제방과 파손된 구조물 등 개선복구가 시급한 시설을 보강하고, 통수단면 부족 등으로 하천 범람을 유발하는 노후 교량을 개체하는 사업이다.

하대성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연내 태풍 피해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주요 공정을 마무리 해 우기에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평해남대천 재해복구사업>

《공사 개요》

- 위 치 :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온정면 일원
- 사업량 : 축제 및 호안 L=8.32km, 교량 8개소
- 사업비 : 38,513백만원(도급:21,982, 관급:8,492, 보상 등:8,039)
- 사업기간 : 2020. 06. 17. ~ 2023. 02. 01. (32개월)
- 시공회사 : 대영에코건설(주), (주)대림종합건설, (주)세종종합건설
- 감 리 : (주)케이지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외2개사

☐ **추진현황** (전체진도 43%)

○ 1지구

- 호 안 공 : 계비온메트리스 (573m/1,800m) 시공중
- 교 량 공 : 광품교, 내광품교, 남대6교 하부공 시공중
- 사토반출 : 143,150 m³/184,439 m³(반출수량/전체수량) 반출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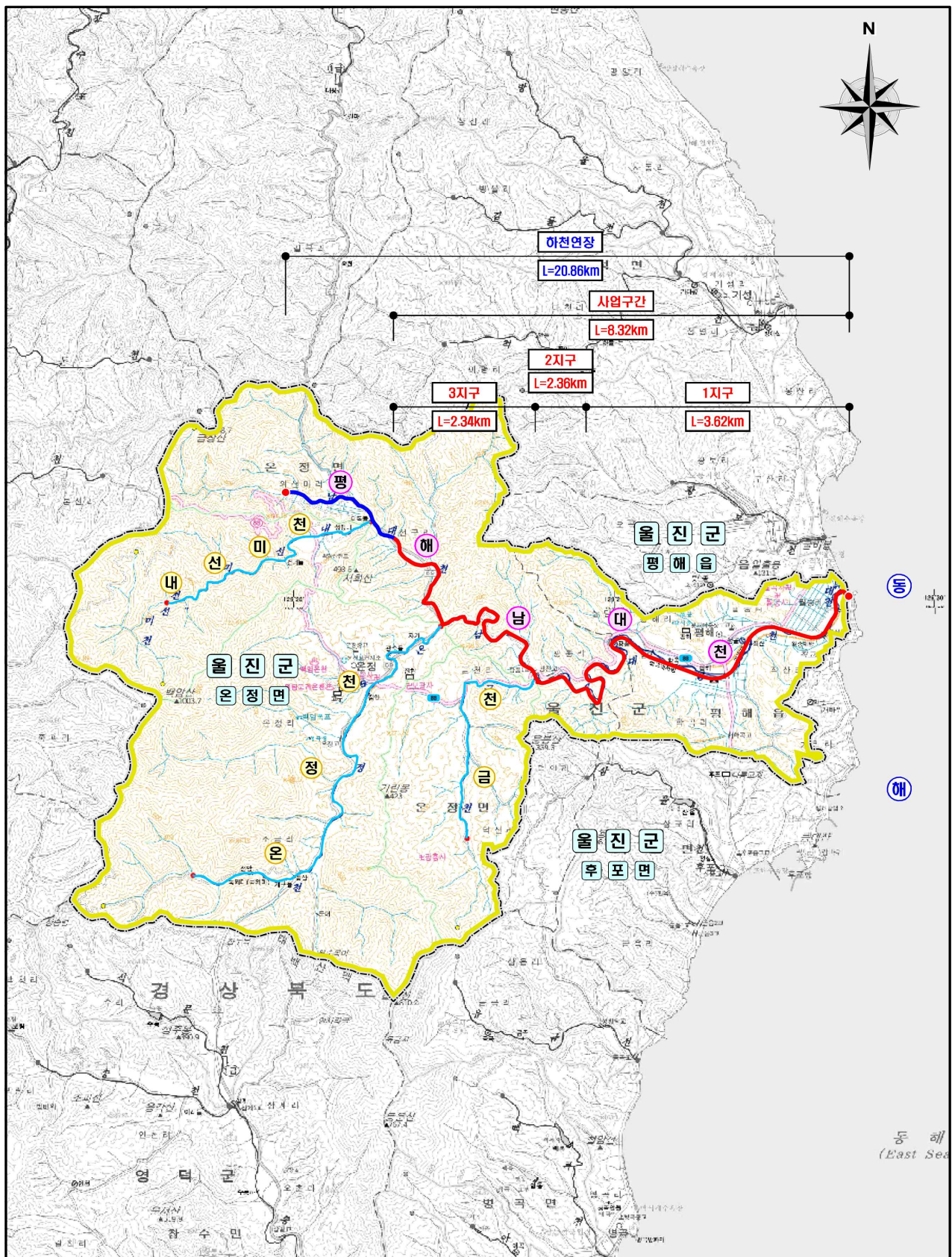
○ 2지구

- 배 수 공 : 배수통관 1개소, 배수암거 2개소 설치완료
- 교 량 공 : 무명교, 남대7교, 광천교 상부공 시공중
- 사토반출 : 104,538 m³/190,689 m³(반출수량/전체수량) 반출중

○ 3지구

- 호 안 공 : 호안블럭 (400m/1,148m) 시공중
- 교 량 공 : 구문곡교, 남대8교 상부공 시공중
- 사토반출 : 111,547 m³ / 111,547 m³(반출수량/전체수량) 완료

위치도



 경상북도	보도자료 【21. 9. 27(월)】	담당부서	환경산림자원국 환경안전과			
		작성 자	과 장	권 경 하		
			담 당	강병정	주무관	이필희
		연 락 처	054-880-3542			

경북도, 영천 자호천 자연친화적 생태하천 복원 완료

- 자호천 6.7km 수질개선, 축사철거 친수공간 조성 등 -

경상북도와 영천시와 함께 영천 소재 낙동강의 2차 지류인 자호천(하천 총연장 36km)의 일부구간을 자연친화적 생태하천으로 복원했다고 27일 밝혔다.

자호천은 영천 자양면 보현산에서 발원해 영천호를 거쳐 선원천, 덕천천과 합해져 금호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하천이다.

사업구간은 영천 임고면 양향교에서 조교동 금호강 합류지점까지 6.7km이며, 2017년부터 올해까지 총 5년간 사업비 60억 원을 투입했다.

자연형 여울 및 어도(5개소), 생태공원, 징검다리 등 수질개선과 생태환경복원은 물론 사람과 하천이 조화되는 친수공간을 조성했다.

주요 사업내용은 기존 콘크리트 고정보를 그대로 존치한 채 보 아래쪽에 완만한 경사를 만들어 원활한 어류 이동을 위한 자연형 여울 및 어도를 조성했다.

또한, 악취와 수질오염의 원인이었던 축사를 철거해 생태공원으로 만들고, 주민편의를 위한 징검다리도 조성했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복원이 완료된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통해 하천 생태계의 적정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꾸준히 관찰하고 관리할 예정” 이라고 전했다.

사업개요

- ## 추진현황

-
 위치도



사진대지

복원전	복원후
	
자연형 여울 및 어도	
	
축사 철거 후, 생태공원 조성	
	
징검다리 설치	
	
생태수로 조성	